

# 예술창작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창작공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ublicness of Artistic Creative Space

- Focused on Seoul Art Space -

**Author** 조연주 Cho, Youn-Joo / 정희원,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신경주 Shin, Kyung-Joo / 참여이사,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교수, 학술박사\*

**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economic value of culture has increased, governments have set a strategy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cultural art. One of concrete ways is establishing a cultural space by using idle facilit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publicness of Seoul Art Space, suggest ways to improve the facilities of creative space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further plan of creative spac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8 facilities from Seoul Art Space which is operated by City of Seoul. Through literature review, we extracted 5 elements(each element has 4 sub categories) for publicness(accessibility, openness, convenience, historical connectivity and stay time) and to evaluates publicness of the Seoul Art Space, we analyzed these facilities based on these ele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ublicness of Seoul Art Space acquired 96.9%(100% is 64 points) for stay time, 95.3% for convenience, 90.6% for accessibility, 73.4% for openness and 62.5% for historical connectivity. For the openness, we suggest to use glass materials and open the space to the public. To improve historical connectivity, we suggest to determine appropriate theme for a particular space or area and set a function of buildings for the differentiation.

**Keywords** 서울시창작공간, 공공성, 문화공간  
Seoul Art Space, Publicness, Cultural space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문화예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각 지역만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거나 개성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휴시설의 재생은 폐시설의 철거 및 새로운 시설의 조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오랜 시간 방치된 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환경적,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버려진 시설의 재생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유휴시설에 축적된 역사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구 공업지역의 폐 공장, 유휴 공공청사, 상권이 쇠락한 지하상가 등 도시 내 유휴공간을 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서울시의 컬처노믹스(culturenomics)<sup>1)</sup> 정책에 따른 것으로, 예술가를 위한 안정적인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을 원천으로 지역재생의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사업의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창작공간은 총 11곳이다. 예술을 통하여 사람과 도시를 잇는 문화공간의 창조라는 사업 목표에 맞게 서울시창작공간이 지역 내 커뮤니티

1) 문화를 뜻하는 컬처(culture)와 경제학을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로 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의미한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kjshin@hanyang.ac.kr

시설의 기능을 하면서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시창작공간이 작가들의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기존의 창작공간과는 달리 작가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공의 개념을 포함하는 공간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창작공간이 공공성을 가질 때 예술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창작공간을 찾게 되고, 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재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창작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창작공간의 시설적인 개선 및 추후 조성될 창작공간의 계획 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창작공간은 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카데미,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흥은예술창작센터, 잠실창작스튜디오, 남산창작센터, 남산예술센터 이상 11곳이다. 이중 남산창작센터는 뮤지컬, 오페라 등 대형 무대공연을 위한 전용 연습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남산예술센터는 국내의 현대연극의 제작 및 공연을 위주로 한 공간이다. 또한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장애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sup>2)</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이 유사하여 상호 비교가 가능한 서울시창작공간 8곳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며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창작공간과 공공성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고, 서울시창작공간 웹사이트와 각종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창작공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건축에서의 공공성 요소를 기초로 하여 서울시창작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설정한다.<sup>3)</sup> 셋째, 분석틀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사례조사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각종 문서 및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와의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창작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을 분석틀

2) 남산창작센터와 남산예술센터는 공연중심의 공간이다. 또한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장애예술가 전용의 창작공간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기타 창작공간과 공간 계획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포함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 3곳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3) 서울시창작공간은 작가들의 창작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서울시창작공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일반 이용자들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신축 건물이 아니라 기존의 동사무소, 인쇄공장, 지하상가 등 이질적인 장소를 공공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문화인, 연극인, 외국인 예술가 등 복수의 예술가 공간으로 탄생시켜 입주작가에 대해서는 함께 비교 할 수 없는 면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다음 기회로 돌린다.

에 맞추어 분석한 후, 점수화 과정을 통하여 각 창작공간에서 나타난 공공성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 2. 예술창작공간과 공공성

### 2.1. 예술창작공간의 이해

#### (1) 예술창작공간의 개념

일반적으로 예술창작공간이란 창작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하며 작업실, 스튜디오(studio), 아틀리에(atelier), 공방, 화실, 연습실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어휘들을 포함한다. 음악, 문학, 미술, 공연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작가들의 창작행위를 바탕으로 예술 작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장소라고 하겠다. 특히 창작행위를 위한 공간을 가리키는 다양한 어휘들은 국내의 경우 최근 들어 창작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불리고 있다.<sup>4)</sup>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알려지게 된 창작스튜디오에 대하여 김윤환(2010)<sup>5)</sup>은 우리나라의 경우 10여 년 정도의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예술계의 중요한 기관으로 정착되어 왔다고 하였다. 창작스튜디오는 예술가들의 사적인 공간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와는 달리 일반인의 방문공간으로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술적 기능의 충족에서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4) 서울문화재단, 유희시설을 활용한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2009, p.113

5) 김윤환, 전국 창작공간 네트워크 워크숍 자료집, 서울문화재단, 2010, p.27

## (2) 예술창작공간의 역할과 가치

최근 조성되고 있는 예술창작공간들은 예술계를 넘어서 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우선 예술창작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작가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창작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창작 공간 내 작가들뿐만 아니라 해외 레지던스 작가들과도 교류함으로써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작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김윤환(2010)<sup>6)</sup>은 기존의 예술은 창작, 발표, 향유가 제각각 이루어짐으로써 시민의 삶과는 괴리될 수밖에 없었고, 예술시장도 소수만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반면 2세대 창작공간은 예술의 창작과 소통, 향유가 하나의 장에서 가능해짐으로써 시민들이 문화의 주체로 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생성된다고 하였다. 즉, 예술창작공간이 공공성을 가진 열린 문화공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예술창작공간은 지역문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창작공간이 군(群)을 이루어 밀집하게 되면, 지역의 장소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가령 오래된 시설이나 유희시설에 예술가들이 모이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창작촌의 경우 도시재생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다. 과거 개인적인 공간으로 국한되던 창작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sup>7)</sup>

## 2.2. 서울시창작공간의 공공성

### (1) 서울시창작공간의 조성배경 및 목표

서울시는 예술과 창의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에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창의문화도시의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로 서울시창작공간의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서울시창작공간의 조성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 공간의 재정비를 통한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의를 바탕으로 문화자본을 축적하고 경제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었다.<sup>8)</sup> 유희시설을 창작공간으로 활용하여 예술가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6) 김윤환, Op. cit., p.31

7) 서울문화재단, Op. cit., p.114

8) 안호상, 서울시 예술공장 탄생이야기, 서울문화재단, 2012, p.14

## (2) 건축에서의 공공성의 개념

공공성(公共性)이란 단어를 이루고 있는 한자의 의미를 바탕으로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公) 하면서 여럿이 함께 하는(共) 성질로 해석할 수 있었다. 공공성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이도 준이치(2009)<sup>9)</sup>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성의 중요한 의미로, 국가에 관련된 공적인(official) 것이라는 의미와 모든 사람과 관계된 공통적인 것(common),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open)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최기원(2005)<sup>10)</sup>은 공공성이란 사회적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목표 아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인 공공성의 의미를 바탕으로 건축에서의 공공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석(1997)<sup>11)</sup>은 모두(公)를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共)하는 열린(開) 건축이 곧 공공성이 있는 건축이라고 하였다. 이호창 외(2008)<sup>12)</sup>는 건축 공간요소를 통하여 ‘공공’의 특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용자 하여금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모두에게 건축 공간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는 공간을 통하여 개인들이 보다 긍정적인 ‘공공’을 형성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건축적 영향력에 비중을 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건축공간은 공동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었다.

### (3) 건축에서의 공공성의 요소

건축에서의 공공성 요소에 대하여 문화시설, 복합용도 건물 내 내부광장, 오피스빌딩 저층부 및 실내공적공간, 외부공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sup>13)</sup> 기존의 연구들은 조사 대상지의 공간구성 및 공간

9) 사이도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역, 이음, 2009, p.18

10) 최기원,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서울시 구민회관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p.27

11) 정석, 건축의 공공성과 도시건축가의 역할, 건축 41권 1호, 1997, p.39

12) 이호창·박정아·하미경, 도시 복합용도시설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일본 복합용도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권 6호, 2008, p.183

13) 본 연구에서 참고한 공공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은비, 도시건축공간을 통한 도시건축 공공성 확보방안-서울시 서초구 사무건축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② 최기원,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서울시 구민회관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③ 김도형·온영태, 을지로 제5지구 도심재개발 현상설계안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보행자 레벨의 저층부와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8권 2호, 1998

④ 손광호·김강섭, 지역 미술관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일본 가나자와 21세기 현대미술관을 대상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4권 6호, 2005

⑤ 신중진·김혜영, 대규모 복합용도개발의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외부공간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8권 5호, 2002

이용의 측면에서 공공성의 분석을 위한 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도출된 요소로 접근성, 연계성, 개방성, 쾌적성을 꼽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공간의 구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일부 연구가 운영 프로그램을 공공성의 분석을 위한 세부 지표로 제시한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만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 내용 및 빈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았다. 본 연구자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빈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하였다.

<표 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조사 시설별 건축적 공공성 요소

구분	연구자 (년도)	조사시설	세부항목
문화 시설	최기원 (2005)	서울시 구민회관	접근성, 연계성, 개방성, 쾌적성, 체류성
	손광호 김강섭 (2005)	일본 가나자와 21c 현대미술관	접근성, 연계성, 개방성, 쾌적성, 체류성
	이정형 김진옥 (2005)	기업참여 문화시설	식별성, 접근성, 편리성, amenity(쾌적성)
사무 시설	이은비 (1998)	서울시 서초구 사무 건축의 공개공지	개방성, 연계성, 접근성, amenity, 이용
	차홍녕 구자훈 (2004)	고층 오피스빌딩 저층부의 전이공간	개방성, 접근성, 연계성, amenity
	윤지혜 김정곤 (2006)	서울 사무소 건축물의 실내공적공간	개방성, 접근성, 쾌적성
복합 용도 시설	이상호 외 (2002)	서울시 서초구 센트럴시티 내부광장	개방성, 연계성, 접근성, amenity(쾌적성)
	이효창 외 (2009)	복합용도건축물의 실내 오픈스페이스	접근성, 쾌적성, 개방성, 연계성
저층부, 외부 공간	김도형 은영태 (1998)	울지로 제5지구 도심재개발 현상설계안의 저층부와 외부공간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amenity
	신중진 김혜영 (2002)	대규모 복합용도개발 지역의 외부공간	접근성, 개방성, 쾌적성

정태용(2010)<sup>14</sup>은 건축의 공공성이란 기본적으로 사용자 위하여 어떠한 공공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건축 환경은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한 기

- ⑥ 윤지혜·김정곤, 실내공적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5권 5호, 2006
  - ⑦ 이상호 외, 복합용도 건물 내부광장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8권 6호, 2002
  - ⑧ 이정형·김진옥, AHP 분석기법을 이용한 기업참여 문화시설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1권 1호, 2005
  - ⑨ 이효창 외, 복합용도건축물 실내 오픈스페이스의 활용을 위한 건축적 공공성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5권 4호, 2009
  - ⑩ 차홍녕·구자훈,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층 오피스빌딩 저층부의 전이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도·도시계획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4
- 14) 정태용, 헤이그 시청사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9권 6호, 2010, p.31

반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운영과 관리에 대한 내용은 공공적 건축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축 환경이 공공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염철호 외 2인(2009)<sup>15</sup>은 오늘날에는 공간의 공급보다 실제적인 공간의 이용행위가 중요시되므로, 형성된 공간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운영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공간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공간의 공급 과정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과 장소의 맥락을 존중하는 공공적, 문화적, 미학적 관점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건축물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및 장소의 맥락을 존중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건축에서의 공공성 요소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로 활용할 공공성 요소를 도출하여 <표 2>에 제시한다.

<표 2> 건축에서의 공공성 요소 도출

요소	의미	관련항목
접근성	이용자가 물리적·심리적으로 불편함 없이 용이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의 위치와 개수</li> <li>• 주차장(주차장의 확보, 주차장의 위치)</li> <li>• 내·외부 수직 동선(계단, 램프, 엘리베이터, 바닥의 높이차)</li> <li>• 안내표시(안내데스크, 안내판, 장애인용 안내판)</li> </ul>
개방성	공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공간이 시각적·물리적으로 열려있는지에 관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공용공간의 개방감(홀, 로비, 복도, 공용실)</li> <li>• 내부공간의 인지를 위한 시각적 투명성</li> <li>• 외피의 투명성</li> <li>• 공간의 개방시간</li> </ul>
쾌적성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용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시설(휴게시설, 위생시설)</li> <li>• 외부 휴식시설(녹지공간, 수공간, 환경시설물)</li> <li>• 자연적 요소의 도입(실내조경시설물, 자연친화적 재료)</li> <li>• 예술조형물</li> </ul>
맥락성	지역과 장소의 특수성과 시간적, 역사적, 사회문화적인 문맥을 고려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건물의 외관</li> <li>• 지역 및 장소의 특수성이 반영된 건축물의 기능</li> <li>• 기존 건축물의 건축적 요소의 보존 및 활용</li> <li>• 장소성이 반영된 조형물</li> </ul>
체류성 <sup>16)</sup>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공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프로그램(강연, 세미나)</li> <li>• 체험 프로그램(예술체험활동, 동아리 활동)</li> <li>• 전시(기획전시, 상설전시)</li> <li>• 각종 공연 및 이벤트(콘서트, 투어)</li> </ul>

### 3. 서울시창작공간의 공공성 분석

- 15) 염철호·조준배·심경미,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pp.119-121
- 16)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몇몇 연구자들이 건축에서의 공공성 요소로 체류성을 제시하였지만 평면구성과 공적 공간 및 편의시설의 확보 등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체류성은 운영 프로그램과 같은 비물리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체류성과는 의미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3.1. 사례선정 및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총 11곳의 서울시창작공간 중 서교예술 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홍은예술창작센터 이상 8곳을 사례로 선정하였다(각주 2 참조). 공공성 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은 <표 2>에서 제시한 공공성 요소인 접근성, 개방성, 쾌적성, 맥락성, 체류성을 바탕으로 각 요소별 세부 관련항목을 분석하였다.

### 3.2. 사례 개요 및 분석

#### (1) 서교예술실험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는 동사무소의 통폐합에 따라 유휴공간이 된 서교동사무소가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된 곳이다. 기존의 홍대가 갖고 있는 미술문화의 중심지, 클럽문화와 인디문화의 본거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홍대 앞에 산재되어있는 문화자원을 연계시키고 다양한 문화단체의 기획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 (2) 금천예술공장

산업구조의 변화로 유휴화된 인쇄공장을 작가들을 위한 장기 레지던스와 스튜디오 중심의 금천예술공장으로 재탄생시켰다.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해외작가와의 교류 프로그램 통하여 작가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작가와 주민들이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림 2> 기존의 인쇄공장의 외관



<그림 3> 금천예술공장의 외관

#### (3) 신당창작아케이드

신당창작아케이드가 위치한 황학동 중앙시장 지하상가는 1971년에 조성되어 한때 이불, 한복, 식당용품 판매 및 회센터 등으로 성업하였으나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침체되어 현재는 일부 점포만 남아 있다. 48개의 빈 점포를 창작공방과 전시실, 공동 작업장, 사무실 등으로 재생시켰으며, 대중과 예술가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 (4) 연희문학창작촌

옛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자리에 문학인들을 위한 4개 동의 집필실을 조성하였다. 작가들의 개별 집필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교육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최초의 문학인 전용 집필실로서 문학인들을 위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었다.

<표 3> 서울시창작공간의 개요

창작공간	규모	기존시설형태	조성방향	개관
서교예술 실험센터	지하1층, 지상2층	서교동사무소	홍대 앞 문화자원 네트워크의 중심	2009.06
금천 예술공장	지하1층, 지상3층	인쇄공장	국제 레지던스와 프로젝트 스튜디오	2009.10
신당창작 아케이드	지하상가 점포 48개	중앙시장 지하상가	재래시장 속 창작 공예공방	2009.10
연희 문학창작촌	지하1층(1개동) 지상1층(4개동)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도심 속 전원형 문학 창작촌	2009.11
문래 예술공장	지상4층	철공소(신축)	문래창작촌 및 국내·외 예술가 창작지원	2010.01
성북예술 창작센터	지하1층, 지하4층	성북구보건소	예술치유 및 주민창작센터	2010.07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지상2층	은천동 주민센터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 체험센터	2010.12
홍은예술 창작센터	지상2층	서부도로 교통사업소	친환경 중심의 예술창작센터	2011.05
남산 창작센터	지상2층	남산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무대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2007.10
남산 예술센터	지하1층, 지상2층(1개동) 지상4층(1개동)	남산 드라마센터	연극과 예술교육의 장	2009.6
잠실창작 스튜디오 <sup>17)</sup>	지상1층	잠실종합운동장 내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장애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	2011.01

#### (5) 문래예술공장

문래동은 1980년대부터 철공소와 자동차 정비소단지가 형성되면서 호황을 누렸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공업지역이 쇠퇴하면서 유휴공간이 증가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문래동의 저렴한 임대료 등의 이유로 예술가들이 모이게 되면서 창작촌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래창작촌의 맥락성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철공소 거리의 옛 철재상가 자리에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인 문래예술공장이 조성되었다. 신진예술가들의 발굴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 (6) 성북예술창작센터

성북보건소가 월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남겨진 유휴공간을 예술가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기존의 보건소가 치료를 위한 공간이었던 점에 착안하여 ‘예술을 통한 치유, 소통, 나눔의 공간’이라는 컨셉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컨셉에 따라 예술가들에게 창작 및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을

17) 2007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운영하였던 공간을 2011년 1월부터 서울문화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초기 장애인창작스튜디오로 출발하였으나, 2012년 7월부터 잠실창작스튜디오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의 커뮤니티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7)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은천동 주민센터의 이전에 따라 발생한 유휴공간을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6~10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은천동 지역 내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활동 체험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장르의 공연물 상영과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8) 흥은예술창작센터

옛 서부도로교통사업소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2011년 5월에 개관하였다. 기존의 서부도로교통사업소가 매년, 분진을 발생시키는 혐오시설의 이미지가 강하여 주민들의 거부감이 강했던 점을 감안하여 ‘자연’을 테마로 한 무용전문창작공간을 조성하였다. 예술가들에게 무용 전문연습실, 창작스튜디오, 공연 및 전시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단순한 창작센터의 기능에서 벗어나 서대문구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술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림 4> 구 서부도로교통사업소

<표 4> 서울시창작공간의 공공성 분석 (1)

공간명	공공성 요소	관련내용	이미지
서교 예술실�험센터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전면에 총 2개의 출입구가 있으며, 주출입구는 1층 전시장과 직접 연결되고, 다른 1개의 출입구는 계단실 및 서교예술 다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와 연결되어 이동이 용이함</li> <li>출입구 앞에 주차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동사무소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추가로 주차공간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협소함</li> <li>내부 바닥은 단차가 없도록 하였으며,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계단 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 내부 공간에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함</li> <li>건물 외부에 서교예술실�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li> </ul>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 공간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1층 아카이브 공간과 전시공간을 하나의 연결된 공간으로 구성함</li> <li>기존 동사무소 건물의 출입구를 확장하여 유리로 마감된 주출입구를 조성하고 건물 1층의 창문을 내부 공간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여 내·외부 공간의 시각적 개방감을 제공함</li> <li>1층 전시실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작가들의 작업실은 24시간 개방하고 있음</li> </ul>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층에 위치한 서교예술다방은 각종 문화예술 관련 자료와 흥대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포트폴리오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아카이브 룸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무료로 음료를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li> <li>건물 전면에 야외테라스를 조성하고, 옥상에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이벤트 공간 및 옥외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li> <li>건물 진입로 및 야외테라스, 옥상의 바닥면을 목재와 같은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여 마감함</li> <li>외부 진입로의 벽면 및 건물 내부 복도의 벽면을 벽화로 장식하여 불거리를 제공함</li> </ul>	
	맥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술,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 발달되어 있는 흥대 앞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유휴시설을 산재되어 있는 각각의 문화콘텐츠를 연결, 유통시켜주는 기능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킴</li> <li>기존 동사무소 건물의 전체적인 틀은 유지한 채 내부 공간을 개조하여 창작공간을 조성함</li> <li>건물 전면에 기존 동사무소에서 동네에 소식을 전하던 스피커를 소형적 요소로 설치하여 건물의 장소성을 표현하였으며, 출입구 옆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기존 서교동사무소에서 제공하였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li> </ul>	
	체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가가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악기 강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주1~2회)</li> <li>옥상에 위치한 공방에서는 시민 누구나 직접 참여하여 생활소품을 만드는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주1회)</li> <li>여러 장르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수시대관으로 매월 전시)</li> <li>일반인들의 아이디어 경연대회, 공연 등 이벤트를 개최함(매년 수차례 진행)</li> </ul>	
금천 예술공장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주출입구가 2개 있으며 각각의 출입구를 통해 스튜디오 및 카페테리아로 접근이 용이함</li> <li>건물 외부공간에 장애인 주차시설을 포함한 충분한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음</li> <li>건물의 출입구에는 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내부의 바닥은 단차가 없어 보행이 용이함</li> <li>건물 외부에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구 옆에 안내실이 있어 공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 또한 건물 내·외부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계단 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음</li> </ul>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작스튜디오 건물 각 층의 홀은 수직적으로 오픈되어 있어 상하공간이 연계를 이루므로 시각적 개방감을 제공함. 또한 스튜디오 건물 옆에 위치한 창고동 작업실은 천고도 4~5m 높이의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열려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함</li> <li>공용공간은 주중에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입주공간은 24시간 개방하고 있음</li> </ul>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층에는 카페테리아가 있으며, 각 층마다 있는 휴게공간에는 창작공간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 작가 및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li> <li>건물 외부에 소공원과 같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작가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건물 2층에는 야외 테라스를 조성하여 작가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함</li> <li>건물 내부의 다양한 공간에 녹색식물을 배치하여 시각적,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함</li> <li>내부 공용공간에 화려한 패턴의 예술조형물을 설치하여 불거리를 제공함</li> </ul>	
	맥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인 건물의 외부는 회색 도장으로 마감하여 주변 산업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함</li> <li>금천예술공장이라는 명칭에서 과거 인쇄 공장이었던 장소의 맥락성과 준공업지역인 금천구의 도시적 맥락을 느낄 수 있음</li> <li>기존 인쇄공장 건물을 개조하여 작가들의 창작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있으며, 창고건물은 대형작업 및 공동 작업을 위한 작업실로 활용함</li> <li>창고동 외부에 철골 프레임과 조형물을 설치하여 기존 공장건물의 상징성을 표현함</li> </ul>	
	체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가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국제 심포지엄, 강연 등을 개최하고 있음(매년 수차례 진행)</li> <li>입주예술가와 인근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워크숍 등을 진행함(매년 수차례 진행)</li> <li>입주작가의 오픈 스튜디오 및 다양한 기획 전시를 실시하고 있음(매년 수차례 진행)</li> <li>밴드 경연대회, 지역 답사 프로그램 등을 개최함(매년 수차례 진행)</li> </ul>	

<표 4> 서울시창작공간의 공공성 분석 (2)

공간명	공공성 요소	관련내용	이미지
신당창작아케이드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당창작아케이드로 진입하는 데 13개의 출입구가 있어 동대문, 신당, 청계천 등 여러 위치에서 진입이 용이함</li> <li>• 신당지하소피텔에 위치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은 좋으나 별도의 주차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있음</li> <li>• 지하소피텔 내의 빈 점포를 활용한 공간이므로 외부에서 신당창작아케이드로 진입할 때 계단 또는 램프를 통해 진입하며, 내부에서는 수직이동 동선이 없으므로 이동이 용이함</li> <li>• 지하철역 출입구와 신당지하상가 입구에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바닥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함</li> </ul>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소피텔 내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상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 옆에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창작공간은 시각적 차단 없이 내부공간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li> <li>• 아케이드의 양쪽에 있는 작업실, 체험공방 등의 벽면 및 출입구는 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 공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음</li> <li>• 휴관일인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전시설 및 아트마켓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개방하고 있음</li> </ul>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종류의 도서가 비치되어 독서 및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작가 및 재래시장 상인 등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함</li> <li>• 자연친화적 재료인 목재로 된 벤치, 테이블, 책장 등을 설치함</li> <li>• 아케이드 내 천정과 벽면, 기둥 등에 작가들의 개성이 드러나는 공공미술작품 및 예술조형물을 설치함</li> </ul>	
	맥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당창작아케이드라는 명칭에서 기존 신당지하소피텔의 장소성을 느낄 수 있음</li> <li>• 1971년에 조성된 지하소피텔의 환기와 대피로의 확보 및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 곳의 입구 등 지하 아케이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함</li> <li>• 재래시장의 분위기, 상인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아케이드 내 기둥 및 벤치에 설치하여 장소성을 보여줌. 또한 아케이드 내 신당생활사박물관을 운영하여 신당동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품과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의 소장품을 전시함</li> </ul>	
	체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섬유, 도자, 금속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매년 분기별 진행)</li> <li>• 작가들이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며,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함(매년 수차례 진행)</li> <li>• 전시설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공방에 입주 작가들의 공예작품을 전시하고 있음(상설전시)</li> <li>• 인근 상인들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획 이벤트와 입주 작가의 작품을 경매이벤트 등을 개최함(매년 수차례 진행)</li> </ul>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희동 주택가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로를 지나 정문을 통하여 창작촌으로 진입할 수 있음</li> <li>• 차량이나 도보로 창작촌 내부까지 진입이 가능하며, 야외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음</li> <li>• 창작촌이 언덕에 위치하고 있지만 각 공간들이 계단이나 램프로 연결되어 이동이 비교적 용이함</li> <li>• 대로변과 창작촌 입구 등에 창작촌의 위치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문자가 창작촌을 찾아오기 용이함</li> </ul>	
연희문화창작촌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개의 집필실 등으로 구성된 4개의 메인 동을 제외한 야외공간과 3동 지하에 위치한 미디어랩은 평소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 미디어랩은 시각적 차단 없이 내부공간을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음</li> <li>• 명절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오전부터 오후 17:00시까지 개방하고 있음</li> </ul>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미디어랩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8,000여종의 문학, 예술 및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읽고, DVD 열람 등이 가능함</li> <li>• 소나무와 과실수의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지를 살려 도심 속 산책로를 조성하고, 산책로와 아트벤치, 야외무대, 연희마당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함</li> <li>• 야외무대와 산책로 계단 등을 목재로 마감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li> <li>• 건물 외벽에 다양한 종류의 벽화를 그리고 외부공간에 작가의 손 전시물 등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함</li> </ul>	
	맥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역사를 정리하여 발간하였던 옛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의 건물의 기능이 현재는 문학을 집필하는 공간으로 이어짐</li> <li>• 옛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가 위치하고 있던 사이트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시사편찬위원회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여 내부공간을 집필실 및 운영사무실 등으로 개조함</li> <li>• 창작촌 진입로에 있는 한글과 펜의 이미지를 표현한 벽화와 한글을 주제로 한 예술조형물은 공간의 장소성을 나타냄</li> </ul>	
	체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희문화학교에서 소설 및 창작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문학창작에 대한 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있음(매년 분기별 진행)</li> <li>• 야외무대에서 정기적으로 연희목요낭독극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작가들과 소통하며 문학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매월 1회)</li> <li>• 연희문화창작촌의 다양한 행사 사진이나 한글을 주제로 하는 작품 등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함(매년 수차례 진행)</li> <li>•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과의 연계프로그램으로 입주 작가의 집필실을 개방하거나 작가와 함께 페스티벌 현장을 걸으며 소통하고, 서울시창작공간 투어프로그램 등을 운영함(매년 수차례 진행)</li> </ul>	
문래예술공장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출입구가 도로에 면해 있으며 자전거 주차장이 출입구 옆에 조성되어 있어 도보 및 자전거를 통한 접근이 용이함</li> <li>• 건물 신축과정에서 일반주차장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차량을 이용한 접근도 용이함</li> <li>• 램프 및 계단을 통해 건물로 진입하며, 건물 내부에는 단차가 없어 보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수직이동도 용이함.</li> <li>• 1층 내부에 안내실이 있어 공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점자 블록 등을 설치함</li> </ul>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3층 두 개 층의 공용공간이 수직적으로 오픈되어 있어 개방감을 제공함</li> <li>• 1층 로비는 시각적 차단 없이 내부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로비 옆에 위치한 1층 스튜디오는 유리벽으로 마감되어 로비 공간과 연계성을 갖는 동시에 하나의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대형작업 및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됨</li> <li>• 건물 전면을 유리로 마감하여 건물의 내외부가 연계되면서 개방성을 가짐</li> <li>•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공간을 개방하고 있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li> </ul>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층에 위치한 카페에는 각종 문화예술관련 서적과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비치하여 휴식을 취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작가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됨</li> <li>• 옥상에는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휴식공간 및 각종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됨</li> <li>• 건물 외부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도 각 공간마다 녹색식물과 같은 자연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함</li> <li>• 건물 내부 벽면과 천정 등에 예술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함</li> </ul>	
	맥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출콘크리트로 외벽을 마감하여 철공수 거리가 밀집되어 있는 문래동 지역의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li> <li>• 문래예술공장이라는 명칭에서 옛 공업단지의 도시적 맥락을 느낄 수 있음</li> <li>• 옛 철재상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적 특성을 반영하여 건물 내·외부에 철재로 된 조형물을 설치하고, 공업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드럼통과 같은 요소를 테이블로 활용하여 장소성을 표현함</li> </ul>	
체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매년 수차례 진행)</li> <li>• 연등동, 문래지역 주민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통기타 감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매년 분기별 진행), 청소년 창의활동 동진을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예술 창작과정을 경험할 수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음(매년 수차례 진행)</li> <li>• MAP(작가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작품을 발표함(매년 일정기간 진행)</li> <li>• 정기적으로 MEET페스티벌(지역예술프로젝트)을 개최하여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영화상연 등을 함(매년 일정기간 진행)</li> </ul>		

<표 4> 서울시창작공간의 공공성 분석 (3)

공간명	공공성 요소	관련내용	이미지
성북예술창작센터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의 전·후면에 2개의 출입구가 있어 여러 방향에서 진입이 용이함</li> <li>각 출입구와 인접하여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차량을 통한 방문이 용이함</li> <li>건물 진입로에 계단과 램프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 공간은 단차가 없으며 계단, 엘리베이터, 램프 등을 설치하여 이동이 용이함</li> <li>건물 외벽에 센터에 대한 소개를 담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1층 홀에는 안내데스크가 있어 건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으며, 건물내부에 점자블록, 점자 표시판 등이 설치되어 있음</li> </ul>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층의 성북예술다방과 2, 3, 4층의 홀은 오픈 스페이스로 되어 있어 시각적 개방감을 제공함</li> <li>건물 출입구의 유리문과 1층 유리창이 내·외부를 시각적으로 연결해주며 내부공간의 인지를 용이하게 해줌</li> <li>명절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개방되어 있어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의 경우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됨</li> </ul>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층 홀에 '성북예술다방'을 운영하여 이용자 누구나 무료로 음료를 마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도서를 비치하여 어린이들의 독서공간으로도 활용함</li> <li>옥상에 위치한 하늘마당은 외부경관을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됨</li> <li>하늘마당의 바닥면과 내부공간의 가구를 친환경 재료인 목재로 마감, 1층 홀에 인조나무를 설치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함</li> <li>내부 벽면에 어린이들의 작품과 조형물 등을 부착하거나 벽화를 그려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li> </ul>	
	맥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를 목적으로 하였던 보건소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예술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창작센터로 재생시킴</li> <li>기존 보건소 건물을 활용하여 건물 외관 및 내부를 개조함</li> <li>구 보건소에서 사용하였던 각종 장비를 전시하고 관련 설명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하여 건물의 장소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함</li> </ul>	
	체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예술단체가 주부, 임신부, 초등학생, 유아 등을 대상으로 음악 및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매년 분기별 진행)</li> <li>통기타 및 밴드 수업과 같은 다양한 창작프로그램과 함께 옥상 공방에서는 DIY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매년 분기별 진행)</li> <li>갤러리에서는 입주예술가의 작품 또는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결과물 등을 전시함(매년 수차례 진행)</li> <li>입주 작가의 오픈스튜디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음악 발표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함(매년 수차례 진행)</li> </ul>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에 면한 건물의 전면에 출입구가 있어 도로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이 용이함</li> <li>출입구 앞에는 협소한 규모이지만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li> <li>건물 내부는 바닥 단차가 없으며,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수직 이동도 용이함</li> <li>건물 입구 쪽에 안내데스크가 있어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내부 바닥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함</li> </ul>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주민센터 건물이 소규모였으므로 개축하면서 1, 2층 내부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함</li> <li>건물의 전면을 유리로 마감하여 내부 공간이 외부와 연속성을 갖는 동시에 자연채광이 실내로 유입되어 공간의 개방성이 커짐</li> <li>일요일을 제외하고 오전부터 오후 17:00시까지 개방하고 있음</li> </ul>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층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화장실에는 어린이 및 일반인, 장애인용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음</li> <li>옥상정원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휴식 공간 및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함</li> <li>공간별 녹색식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가구 및 옥상정원 바닥을 목재와 같은 친환경적 재료로 마감함</li> <li>어린이들의 작품을 전시물로 활용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함</li> </ul>	
	맥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은천동 주민센터 건물을 보존, 활용하여 어린이 대상의 공공시설로 재생시킴</li> </ul>	
	체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들을 위한 미술, 음악 등의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대상의 자녀교육특강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음(매년 수차례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li> <li>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작가들과 교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함(매년 분기별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상설체험 프로그램도 진행)</li> <li>예술체험 워크숍을 운영하며 그 결과물을 전시함(매년 수차례 진행)</li> <li>주말 프로그램으로 전문극단의 공연 프로그램 및 작가들과 함께 하는 예술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음(매월 2회)</li> </ul>	
홍은예술창작센터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작센터로 진입할 수 있는 2개의 진입로가 있으며, 건물에는 1개의 출입구가 있음</li> <li>건물 출입구 옆 외부공간에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li> <li>건물이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계단 또는 램프를 통하여 건물로 진입이 가능하고, 건물 내부 바닥은 단차가 없으며 계단, 엘리베이터, 램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수직이동도 용이함</li> <li>1층 입구에 건물 공간구성에 대한 안내판이 있으며, 건물 내·외부 바닥 및 손잡이에 점자블록과 점자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음</li> </ul>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층 중앙 홀은 1, 2층이 수직적으로 오픈된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어 건물에 진입하면서 개방감을 느끼게 해 줌</li> <li>교육연습실, 세미나실과 같은 공용 공간 및 무용연습실의 출입구가 유리로 마감되어 있어 내부 공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음</li> <li>신축된 건물의 홀 부분은 대부분 유리벽으로 마감되어 있어 건물 내·외부가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li> <li>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오전부터 오후 18:00시까지 공간이용이 가능함</li> </ul>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층에 북카페를 조성하여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무료로 음료를 즐길 수 있으며, 장애인용 화장실에는 손잡이뿐만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각도거울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li> <li>건물 외부에 넓은 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2층 카페와 연계된 야외 테라스를 조성하여 외부경관의 조망이 가능함</li> <li>홀, 복도, 주방 등에 녹색식물을 비치하고 나무, 돌과 같은 자연적 소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함</li> <li>중앙 홀 벽면에 홍은예술창작센터 프로그램의 주요 테마인 무용을 상징하는 발레리나슈즈 조형물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함</li> </ul>	
	맥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 서부도로교통사업소의 건물 중 영화촬영소 보관 창고는 허물고 그 자리에 창작센터 건물의 일부를 신축하였으나, 벽돌조로 된 건물은 벽면 일부만 보수하여 작가 스튜디오 등으로 활용함</li> <li>1층 홀 바닥에는 과거 서부도로교통사업소의 이미지와 간략한 설명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여 건물의 역사성을 보여주었고 있으며, 건물 외부에 도로표지판, 도로공사용 장비, 타이어 등을 이용한 작품을 설치하여 건물의 장소성을 표현함</li> </ul>	
	체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무용분야 입주예술단체가 성인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시각분야 입주예술가가 미술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매년 상·하반기별 테마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진행)</li> <li>무용, 미술 체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매년 상·하반기별 테마에 따라 진행)</li> <li>지역 주민들과 입주 작가들이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물 및 입주작가의 작품을 전시함(매년 수차례 진행)</li> <li>입주 무용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춤 공연을 함(매년 수차례 진행)</li> </ul>	



### 3.3. 종합분석

8곳의 서울시창작공간을 대상으로 각 공간에 나타난 공공성의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서울시창작공간에서 공공성 요소는 체류성이 함께 96.9%(62점)<sup>18)</sup>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쾌적성 95.3%(61점), 접근성 90.6%(58점), 개방성 73.4%(47점), 맥락성 62.5%(40점) 순으로 낮아졌다.

조사대상 창작공간은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전시, 공연 및 이벤트 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하여 7시설이 100%(8점)로 나타나 체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75%(6점)로 나타난 금천예술공장은 강연과 세미나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공연 및 이벤트 등이 평균적으로 1년에 5건 이하의 프로젝트(대체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장기간 진행함)를 진행하여 다른 창작공간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쾌적성은 세부항목인 편의시설, 외부 휴식시설, 자연적

요소의 도입, 예술조형물은 대체로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당창작아케이드는 다른 공간에 비하여 쾌적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당창작아케이드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휴식시설의 구성이 어렵고, 실내조경시설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었다.

접근성의 경우는, 출입구의 위치 및 개수는 출입에 용이하게 갖추어져 있었고 안내표시도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3곳(신당, 서교, 관악)은 지하 아케이드나 기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였던 건물을 재생시킨 경우로 주차시설이 없거나 협소한 규모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에 경사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건물(연희, 홍은)의 경우에는 계단 및 램프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다소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성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의 공용공간은 대상 시설 8곳 모두가 개방감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공간의 이용시간 측면에서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표 5> 서울시창작공간의 공공성 분석

%(점수)

공공성의 요소		서교	금천	신당	연희	문래	성북	관악	홍은
접근성	출입구의 위치 및 개수	■	■	■	■	■	■	■	■
	주차장(주차장의 확보, 주차장의 위치)	□	■	-	■	■	■	□	■
	내·외부 수직 동선(계단, 램프, 엘리베이터, 바닥의 높이차)	■	■	■	□	■	■	■	□
	안내표시(안내데스크, 안내판, 장애인용 안내판)	■	■	■	■	■	■	■	■
	각 창작공간의 접근성 적용 비율(소계)	87.5(7/8)	100(8/8)	75(6/8)	87.5(7/8)	100(8/8)	100(8/8)	87.5(7/8)	87.5(7/8)
전체 창작공간의 접근성 적용 비율(합계)		90.6(58/64)							
개방성	내부 공용공간의 개방감(홀, 로비, 복도, 공용실)	■	■	■	■	■	■	■	■
	내부공간의 인지를 위한 시각적 투명성	-	-	■	-	■	■	-	■
	외피의 투명성	□	-	-	-	■	-	■	■
	공간의 개방시간	■	■	■	■	■	■	■	■
	각 창작공간의 개방성 적용 비율(소계)	62.5(5/8)	50(4/8)	75(6/8)	50(4/8)	100(8/8)	75(6/8)	75(6/8)	100(8/8)
전체 창작공간의 개방성 적용 비율(합계)		73.4(47/64)							
쾌적성	편의시설(휴게시설, 위생시설)	■	■	■	■	■	■	■	■
	외부 휴식시설(녹지공간, 수공간, 환경시설물)	■	■	-	■	■	■	■	■
	자연적 요소의 도입(실내조경시설물, 자연 친화적 재료)	■	■	□	■	■	■	■	■
	예술조형물	■	■	■	■	■	■	■	■
	각 창작공간의 쾌적성 적용 비율(소계)	100(8/8)	100(8/8)	62.5(5/8)	100(8/8)	100(8/8)	100(8/8)	100(8/8)	100(8/8)
전체 창작공간의 쾌적성 적용 비율(합계)		95.3(61/64)							
맥락성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건물의 외관	-	■	-	-	■	-	-	-
	지역 및 장소의 특수성이 반영된 건축물의 기능	■	□	□	□	□	■	-	-
	기존 건축물의 건축적 요소의 보존 및 활용	■	■	■	■	-	■	■	■
	장소성이 반영된 조형물	■	■	■	■	■	■	-	■
	각 창작공간의 맥락성 적용 비율(소계)	75(6/8)	87.5(7/8)	62.5(5/8)	62.5(5/8)	62.5(5/8)	75(6/8)	25(2/8)	50(4/8)
전체 창작공간의 맥락성 적용 비율(합계)		62.5(40/64)							
체류성	교육 프로그램(강연, 세미나)	■	■	■	■	■	■	■	■
	체험 프로그램(예술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	□	■	■	■	■	■	■
	전시(기획전시, 상설전시)	■	■	■	■	■	■	■	■
	각종 공연 및 이벤트(콘서트, 투어)	■	□	■	■	■	■	■	■
	각 창작공간의 체류성 적용 비율(소계)	100(8/8)	75(6/8)	100(8/8)	100(8/8)	100(8/8)	100(8/8)	100(8/8)	100(8/8)
전체 창작공간의 체류성 적용 비율(합계)		96.9(62/64)							

■ 2점, □ 1점, - 0점<sup>19)</sup>

18) 5개의 공공성 요소별 세부항목을 점수화하였을 때 각 요소별 만점은 8점이다. 8곳의 창작공간이 모두 만점일 경우 합계가 64점이므로, 이를 100%로 하고 ( )속에 점수를 표시하였다.

19) 해당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2점, 갖추어져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1점, 미설치의 경우는 0점을 부여하였다.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축한 문래 예술공장과 기존 건물을 바탕으로 증축한 홍은예술창작센터를 제외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개조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피와 내부 공간의 시각적·물리적 투명성이 떨어져서 개방감이 낮았다. 문래와 홍은은 개방감이 100%(8점)으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개방감이 있는 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이 두 곳 시설을 참고 할 수 있겠는데, 두드러진 특징은 유리 재료를 사용하여 투명감을 주는 동시에, 상하 공간을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맥락성은 5가지 공공성 요소 중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문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창작공간을 조성하였고, 관악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기존 건물의 장소성이 반영된 조형물을 설치하여 건물의 장소적, 역사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및 장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기능을 특화시킨 경우는 많지 않았다. 특히 도시적 맥락을 고려하여 건물의 외관을 계획한 경우는 8곳의 창작공간 중 금천과 문래 2곳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4.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창작공간을 대상으로 각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을 분석하였다. 공공성의 요소로 접근성, 개방성, 쾌적성, 맥락성, 체류성을 도출하였고, 각 항목별 세부사항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홍은예술창작센터 이상 8곳의 공공성을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각 창작공간의 건축적 측면 및 운영적 측면에서 공공성의 요소를 분석, 종합한 결과 체류성, 쾌적성, 접근성, 개방성, 맥락성 순으로 낮아졌다. 특히 건축물의 계획 시 맥락성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물을 재생시킬 때 건물 자체의 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근시안에서 벗어나 도시적 맥락을 고려하는 쪽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둘째, 각 창작공간은 작가 및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강연 및 세미나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 전시, 공연 및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을 대체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창작공간이 자발적으로 이용자들이 방문하여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각 공간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학교, 문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프로

그램을 홍보하고 공유한다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체적으로 각 창작공간은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예술조형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자연적 요소를 도입하고 외부 휴식시설도 비교적 잘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신축이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창작공간을 조성할 경우는 건물 내·외부에 성인, 어린이,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한 휴식공간의 조성을 제안한다. 또한 외부 휴식공간의 조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 실내식물,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넷째, 각 창작공간은 출입 및 보행이 용이하도록 출입구 및 내·외부 수직 동선, 안내표시를 잘 갖추고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계단, 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고 바닥의 단차를 두지 않았으며, 점자블록과 장애인용 안내판을 설치하여 일반인과 장애인이 물리적·심리적으로 불편함 없이 시설에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접근성은 건물의 입지와 연관성이 많은 요소이다. 기존의 건물이 경사지나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던 경우는 접근성에 다소 제약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대중교통 및 지역 공용 주차시설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다섯째, 건축물의 개방성을 위하여 홀, 로비 등과 같은 공용공간은 시각적인 제약 없이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고, 상·하층을 오픈하여 개방감을 높이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고 있었다. 시각적 투명성은 개방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공간에 쉽게 접근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로 보다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건축물의 내·외부에 유리와 같은 투명한 소재를 이용하여 공공의 접근이 시각적, 심리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대부분의 창작공간에서 맥락성은 유휴시설의 건물을 보존·활용하고 기존 시설의 소품 등을 전시 조형물로 활용하여 역사성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소 및 지역적 특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 및 장소의 특수성과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건물의 기능 및 외관의 계획 측면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소성과 지역성이 반영된 테마를 설정한 후 건물의 기능을 정한다면 각 창작공간이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함께 건물 자체의 재생에서 나아가 도시와의 조화를 고려한 건물을 계획하면 보다 지속가능한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서울시창작공간은 유휴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창작공간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확보가 필요하며 접근성, 개방성, 쾌적성, 맥락성, 체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창작공간이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기능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참고문헌

1. 김윤환, 전국 창작공간 네트워크 워크숍 자료집, 서울문화재단, 2010
2. 서울문화재단, 유휴시설을 활용한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2009
3. 안호상, 서울시 예술공장 탄생이야기, 서울문화재단, 2012
4. 사이트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하버마스과 아렌트를 넘어서,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역, 이음, 2009
5. 엄철호·조준배·심경미,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6. 이은비, 도시건축공간을 통한 도시건축 공공성 확보방안-서울시 서초구 사무건축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7. 최기원,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과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서울시 구민회관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8. 김도형·윤영태, 을지로 제5지구 도심재개발 현상설계안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보행자 레벨의 저층부와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8권 2호, 1998
9. 손광호·김강섭, 지역 미술관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일본 가나자와 21세기 현대미술관을 대상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4권 6호, 2005
10. 신중진·김혜영, 대규모 복합용도개발의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외부공간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8권 5호, 2002
11. 윤지혜·김정곤, 실내공적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5권 5호, 2006
12. 이상호 외, 복합용도 건물 내부광장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8권 6호, 2002
13. 이정형·김진욱, AHP 분석기법을 이용한 기업참여 문화시설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1권 1호, 2005
14. 이효창·박정아·하미경, 도시 복합용도시설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일본 복합용도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4권 6호, 2008
15. 이효창·박정아·하미경, 복합용도건축물 실내 오픈스페이스의 활용을 위한 건축적 공공성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5권 4호, 2009
16. 정석, 건축의 공공성과 도시건축가의 역할, 건축 41권 1호, 1997
17. 정태용, 헤이그 시청사에 나타난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9권 6호, 2010
18. 차홍녕·구자훈,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층 오피스빌딩 저층부의 전이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학술대회논문집, 2004
19.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
20.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 <http://www.seoulartspace.or.kr/>

[논문접수 : 2012. 10. 05]

[1차 심사 : 2012. 11. 14]

[게재확정 : 2012. 12. 10]